



With KAU Webzine

Twenty four steps

그대의 푸른 꿈 향한
성공적인 첫걸음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 활동	
해외여행 준비하기 일상기술 미니특강	2
멘토-멘티 KAU SPACE 핵심역량 설계 공모전 결과	3
2022-2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상희와 아이들”	4
항공전자정보공학부 “E~리오너라”	5
신소재공학과 “소수정예”	6
소프트웨어학과 “따라와십팔”	7
스마트드론공학과 “평생 잊지말자 스프공”	8
SI지울주행시스템공학과 “질수없조”	9
공학계열 “뽕짝이들”	10
항공교통물류학부 “꼬물꼬물”	11
항공운항학과 “BLACK 송골스”	12
경영학부 “너나잘해”	13
자유전공학부 “자전축”	14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불편한 편의점2 : 김호연	15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경영학부 “유근두근”팀 인터뷰	17
6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21
새내기성공센터 2023년 7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4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박은경] 저작권
 |촬영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기 일상기술 미니특강

새내기성공센터는 5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실에서 '해외여행 준비하기'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말은 연지원 작가는 "여러 의미에서 대학생은 곧 여행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여행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이고 20대는 여행의 가치를 만끽하기에 좋은 시절이다. 라며 참여한 학생들과 토론하며 특강을 이어갔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대학 학우들을 위해 초보, 자유여행자를 위한 해외여행 지식을 전달하고 특히, 여행지 선정과 여행지에서의 경험 등 전반적인 길라잡이 특강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학우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학우들은 "여행 준비에 있어서 돈이 가장 필수이지 않나 싶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이 되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한다",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려주셔서 좋았다. 여름에 여행 갈 계획인데 그때 알려주신 내용 참고해서 여행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새내기지원팀장은 "일상기술 미니 특강을 통해 일상에서 다양한 배움을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특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KAU SPACE 핵심역량 설계 공모전 결과

새내기성공센터는 5월 2023 멘토-멘티 KAU SPACE 핵심역량 설계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멘토와 멘티가 스스로 자기를 분석하고 SPACE 핵심역량 목표 설정으로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멘토부분 최우수상은 경영학부 하채언(20학번), 멘티부분 최우수상은 경영학부 박승현(23학번)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완성도, 구체성, 창의성, 공감성 등 교내외 비교과프로그램 이용성을 기준으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SPACE 핵심역량 설계 여부를 평가했다.

박승현학생은 "대학이라는 바다에 유명 중인 나는 아직도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다. 부족한 나이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앞으로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는 깨달은 것 같다.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나마 알려주었고 앞으로는 그것을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너지지원팀장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SPACE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상희와 아이들”

멘티들의 추천을 받아 상희와 아이들이라는 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상희와 아이들

활동목적

- ☆ 새내기들의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멘티와 멘티간의 친밀감 형성을 주도
- ☆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고민상담 및 전공과목 멘토링 지도 예정

참여소감

- 멘토 :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떨 때는 멘티들을 잘 챙겨주긴 했지만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느라 못챙겨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크다. 하지만 언제나 거리낌 없이 다가와서 먼저 질문해주고 활동에 참여해준 멘티들에게 매우 고마울따름이다.
- 멘티 : 대학생활을 많이 걱정했지만 멘토링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속하여 다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만나고 놀고 하다보니 너무 재밌었고 대학생활에서 모르는 점을 스스럼없이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생겨서 너무 좋다.

항공전자정보공학부 “E~리오너라”
전자의 Electrom의 E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E~리오너라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한 팁 공유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진로 방향 모색

참여소감

- ▣ 멘토 : 멘토링을 직접 진행하면서 새내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잘 따라와준 멘티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 ▣ 멘티 : 1학기에 이어 2학기때에도 멘토링을 진행한 결과, 1학기 때보다 동기들과 친해져 있어 더욱 편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토 선배가 바뀌어서 얻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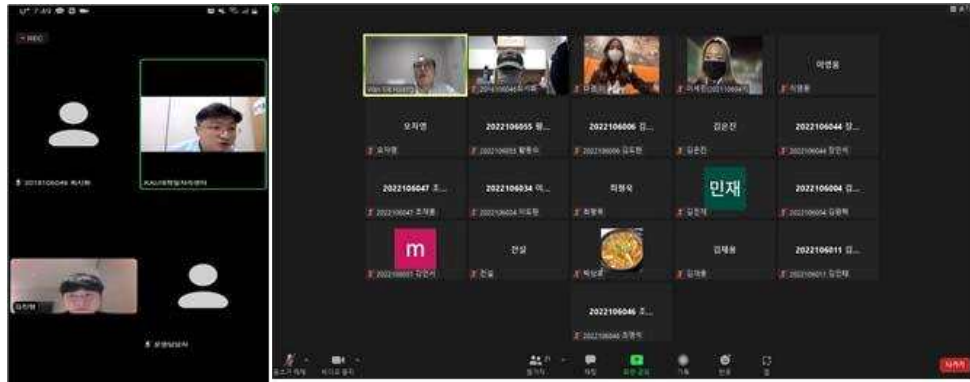
신소재공학과 “소수정예”

다른 멘토링팀에 비해 인원은 적지만 그만큼 더 돈독하고 알찬 2학기를 보낼 예정이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소수정예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 간의 우애 형성

- ▣ 멘토 : 지도교수 간담회를 통하여 멘토인 나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조 멘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와의 교류 활동을 통하여 더욱 유익하고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 ▣ 멘티 : 다른 동기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동기들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이기에 신입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감

소프트웨어학과 “따라와십팔”

18학번 멘토를 잘 따라와 멘토링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따라와십팔

- ☆ 2학기에도 파이팅하자. 학업도 소홀히 하지 말자.
- ☆ 서로의 숨은 맛집과 꿀팁 공유하자.

- ▣ 멘토 : 저의 마지막 재학생 멘토 활동이었는데, 이런저런 일이 바빠 멘티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만,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을 전해주는 멘티들을 보며 지난 1년간 팀명처럼 잘 따라와 주어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 ▣ 멘티 : 멘토 멘티 활동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수상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걸 알고 앞으로 2학년 때부터는 주도적으로 참여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드론공학과 “평생 잊지말자 스드공”

평생 같은 멘토링 팀을 했던 사람들을 잊지말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평생 잊지말자 스드공

- ☆ 같은 학과 새내기들의 보람차고 알찬 대학생활
- ☆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함양 및 친목을 다짐

- ▣ 멘토 : 멘토 멘티를 하면서 멘토와 멘티 모두 서로에게 배울점에 대해 알아보고 많이 친해지고 어울리며 보람차고 재미있는 2학기를 보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 멘티 : 멘토가 항상 주도적으로 활동들을 소개시켜 주어 좋았고, 특히 멘토의 소개로 UAM 콘퍼런스에 동기들과 함께 가서 UAM에 관한 전망을 듣고 인터뷰까지 할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 멘티 : 중학교에 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전공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드론 관련 활동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질수없조”

질수없조 팀은 어디가서도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 질수없조

- ☆ 본격적으로 심화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잘 적응하고 진로에 대해 도와주기 위함
- ☆ 멘티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멘티들 및 멘토간의 우정을 쌓기 위함

참여소감

- ▣ 멘토 : 멘티들이 조용한 성격이어서 단체 모임을 갖는 게 어려워 아쉬웠음. 다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의 성격을 알고나니 되게 따뜻한 친구들이였음. 나의 전공이 멘티들의 과와 잘 맞아서 질문들도 잘 받아줄 수 있었고 프로젝트도 공유해줄 수 있어서 좋았음. 그러나, 대학원 준비로 인해 많이 바쁜 학기여서 많이 못해준것에 대한 아쉬움이 큼.
- ▣ 멘티 : 전공 과목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도 연락하겠습니다.

공학계열 “뽕짝이들”

뽕짝이란 새내기들을 지칭하는 말로, 뽕짝이들이라는 팀명은 귀여운 새내기들이라는 뜻이다. 멘토의 눈에는 새내기들이 다 귀여워 보인다..ㅎ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뽕짝이들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꿀팁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신뢰 형성

- ▣ 멘토 : 1년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새내기때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할수있도록 알려주고, 오히려 여러방면에서 생각도 못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관계가 아닌 멘티들이 군대를 갔다와서 복학을 해도 쉽게 연락을 주고받고 도움을 구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 ▣ 멘티 : 22학번중에 동갑인 친구가 없을거라 생각하여 정말 무서웠었는데 멘토님이 동갑이라 정말 의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부 “꼬물꼬물”

꼬물꼬물 애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본떠서 교물과 꼬물꼬물을 합한 팀명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벌레일 수 있지만,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예쁜 나비처럼 성장해갈 신입생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팀명을 정했습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꼬물꼬물

- ☆ 멘티&멘토와의 관계형성 및 추억쌓기
- ☆ 연합멘토링을 통한 주변관계 확장

- ▣ 멘토 : 완벽한 대면으로서 만나는 멘토링은 처음이라 어떤 활동이 1학년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좋은 추억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학기 초 서로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볼 수 있었고 멘티들도 재미있어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 ▣ 멘티 :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 새내기멘토링을 통한 친구들이 가장 친하고, 추억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입학할 때, 조교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멘토님이 정말 친절하게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운항학과 “BLACK 송골스”

원래 BLACK EAGLES이지만, 항공대인 만큼 BLACK 송골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BLACK 송골스

- ☆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자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의 편한 분위기 형성

▣ 멘토 : 후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은 있어도 다양한 활동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처음이었습니다. 보람찬 것도 있고 학생회 혹은 수업 및 다양한 이외의 활동들 보다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멘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활동과 친구들 덕분에 내년에도 설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멘티 : 멘토님께서 한학기동안 짧은 시간내에 멘토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 하신것 같습니다. 새내기 멘토링 활동을 하며 저 또한 2학년이 되었을때 후배들의 유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후배들을 이끌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경영학부 “너나잘해”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한 해를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2022년을 끝내주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팀명을 지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너나잘해

- ☆ 멘토와 멘티, 멘티와 멘티끼리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 ☆ 새내기를 위한 선배의 조언과 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 참여 유도하기

참여소감

- ▣ 멘토 : 학기부터 멘토를 맡게 되어, 누구보다 걱정과 설렘이 가득했던 멘토링이었다. 중간에 합류한 만큼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 소통이 잘 되는 멘토,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멘토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 노력을 멘티들이 많이 알아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
- ▣ 멘티 : 처음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에 왔을 때, 개학 전에 연락해주시고, 개학 첫 주에 투어도 시켜주시고, 멘티들에게 유용한 학습 자료도 많이 제공해주신 멘토님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 더 쉽고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날 반가워해 준 멘토와 멘티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유전공학부 “자전축”

자유전공학부에서 중심축이 되길 기원하는 의미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자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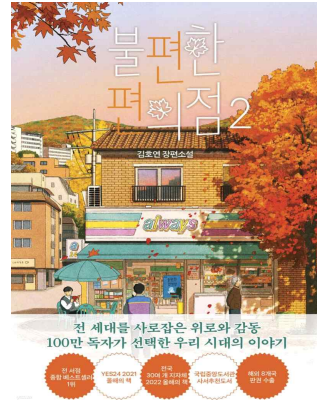
- ☆ 새내기들의 꾸준한 공부 습관 형성하기
- ☆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날리기

- ▣ 멘토 : 1학기 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멘티가 적어 아쉬웠지만 그 만큼 더욱 알차게 보내고 서로 더욱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 좋았다. 같은 것을 봐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신기하여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멘토링을 통하여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 ▣ 멘티 :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의지가 되었고 혼자서 공부할 때는 미루는 날도 많고 대충 하는 날도 많았는데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학습 욕구가 자극되었던 것 같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재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청파동 ALWAYS편의점입니다.

독고가 떠나고 1년 반이 지난 여름,
청파동 ALWAYS편의점에 새 야간 알바가 들어온다.



재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청파동 ALWAYS편의점입니다.

독고가 떠나고 1년 반이 지난 여름,
청파동 ALWAYS편의점에 새 야간 알바가 들어
온다.
커다란 덩치와 부담스러운 행동이 누군가를 연
상시키는 이 사내는, 점장 선숙의 핀잔과 사장
민식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냥 느긋하게 편
의점의 밤을 지켜가는데...

마음이 머물고, 사연이 오가고, 눈물과 웃음이
터지는 곳.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편의점의 더 깊은 이
야기가 시작된다!

1년 6개월 전 이곳의 새벽을 지키며 기억을 회
복해 나간 그 사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추운
겨울을 이곳에서 따뜻하게 보냈다고 했는데, 이
열대야의 여름에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시원
하다 못해 썰렁한 이 냉장고 같은 편의점이, 그
사람이 있던 겨울엔 따뜻한 난로 같은 공간이었
다는데…… 정말 그랬을까?
근배는 편의점 곳곳에 독고의 모습을 투영해보
았다. 쉽지 않았지만 그게 그의 일이었다.
_본문에서

한층 진득해진 이야기와 궁금증 가득한 캐릭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다시 편의점
에 모여든다!

재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청파동 ALWAYS편의점입니다

출간 후 1년이 넘도록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베
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소설, 김호연 작
가의 『불편한 편의점』이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다
시 찾아왔다. 청파동 골목의 작은 편의점을 무대
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린 『불편한 편의점』은
2022년 상반기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에
서 집계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와 70만 부 판
매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21년 예스24 ‘올해
의 책’에 선정되었고, 2022년에는 전국 25개 지
자체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잇따라 선정되는 등 소설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역 노숙인 독고 씨가 편의점의 야간 알바로
일하면서 시작되는 1편의 이야기는 예측불허의
웃음과 따스한 온기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불편한 편의점 2』는 전편의 위트와 속 깊은 시
선을 이어가며 더욱 진득한 이야기로 독자를 끌
어당긴다. 소설은 1편의 시간으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여름날의 편의점을 스케치하며 시작된다.
그동안 세상도 달라지고 청파동의 ALWAYS편의
점도 이모저모 바뀌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도입부의 묘사는 소설
속 현실에도 코로나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아들
과의 불화로 답답해하던 선숙은 점장이 되었고,
편의점을 팔자고 조르던 염 여사의 말썽꾼 아들

민식은 사장이 되어 있다. 말이 사장이지, 민식은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수익 운운하며 주휴수당 같은 비용 줄이기에만 열을 올리니, 여러모로 ‘진짜로 불편해진’ 편의점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던 중 독고의 후임으로 밤 시간을 책임지던 콧 씨가 그만두고 새 야간 알바가 들어오면서 편의점은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한다.

새로 온 알바는 커다란 덩치와 부담스러운 행동이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40대 사내. 그는 인간 알바몬이라도 되는 양 화려한 알바 경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편의점 일은 어수룩하기만 하다. 게다가 수다쟁이에 오지랖은 못 말할 지경이어서 점장 선숙에게 핀잔을 뜯기 일쑤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황근배라는 이름 대신 홍금보라는 별명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마냥 느긋하게 손님들을 맞으며 편의점의 밤을 지켜 나간다.

마음이 모이고, 사연이 쌓이고, 눈물과 웃음이 터지는 곳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편의점의 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된다!

근배는 놀라운 친화력으로 편의점을 찾는 손님과 동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사연에 귀 기울인다. 취업에 계속 낙방하다 악명 높은 블랙 기업에 당할 뻔한 자신을 호구 같다 생각하는 취준생 동료 소진, 코로나 거리두기로 장사가 안 돼 매일 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술을 하며 전전긍긍하는 근처 정육식당 최 사장, 원격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열악한 집안 환경과 엄마 아빠의 잦은 다툼에 상처받는 고등학생 민규. 근배가 이들에게 보이는 관심은 때로 ‘라떼’와 ‘오지랖’ ‘얄미운 잘난 척’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호의를 지닌 진심’은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심지어 그는 건달기와 허세로 가득한 사장 민식의 마음까지 움직인다.

근배가 속상해 울먹이는 소진에게 연갈색 음료를 건네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최 사장 옆에서 맥주처럼 보이는 음료를 들고 건배를 청할 때, 날마다 집과 더위를 피해 편의점을 찾는 민규에게 유통기한이 갓 지난 상품을 간식거리로 나눠줄 때, 독자의 머릿속에는 영락없이 독고가

오버랩 된다. 실제로 근배는 적막한 새벽녘에 자주 독고를 생각한다.

1년 6개월 전 이곳의 새벽을 지키며 기억을 회복해 나간 그 사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추운 겨울을 이곳에서 따뜻하게 보냈다고 했는데, 이 열대야의 여름에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시원하다 못해 썰렁한 이 냉장고 같은 편의점, 그 사람이 있던 겨울엔 따뜻한 난로 같은 공간이었다는데…… 정말 그랬을까? 근배는 편의점 곳곳에 독고의 모습을 투영해보았다. 쉽지 않았지만 그게 그의 일이었다. (164쪽)

그는 독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를 이 편의점으로 이끌었을까? 독고와 우정을 나누었던 염 여사는 아들에게 편의점을 맡겨두고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고조될 무렵 의문은 하나씩 풀리고 소설은 전편의 이야기와 극적으로 조우한다.

삶을 호위하는 불빛, 희망을 지키는 초소

여덟 개로 이루어진 에피소드마다 중심인물이 바뀌는 서술 방식과 현실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 단번에 이야기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힘 있는 스토리텔링은 여전하다. 『불편한 편의점 2』에서 인물들은 모두 고난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 암, 걱정 독”을 주문처럼 외우는 해맑고 태평한 근배조차도 그렇다.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은 그들에게 시련과 고민을 안겼고, 모색을 요구했으며, 제쳐두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했고, 진짜 삶을 생각하게 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아픔을 나누며, 변화하고 일어나고 꿈을 꾸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용기를 낸다. 그리고 다시 함께 웃기 위해 애쓴다.

“24시간 내내 불 켜진 그곳이 방법 초소인 양 내 삶을 호위하길 원했다”는 염 여사의 말처럼, 골목길의 작은 편의점은 고난과 단절을 넘어 주인과 점원, 손님 모두에게 희망의 초소가 된다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유근두근”팀 송유근멘토, 장명건멘티, 지영채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AU 3중 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24호에서는 경영학부 "유근두근"팀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유근두근팀은 3중멘토링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멘토-멘티간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팁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3중멘토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나요?

송유근 멘토 : 항공대 경영학과 20학번 송유근 멘토입니다. 2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째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매해 만나는 멘티들이 너무 기대되어 올해에도 귀여운 새내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장명건 멘티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23학번 장명건입니다. 저희 멘토링 팀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임무는 '맛집 추천'입니다. 학교 밖에서 만남을 갖거나 동기들끼리 놀 때 모두가 만족하는 식당을 찾아 더욱더 즐거운 모임

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채 멘티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23학번 지영채입니다. 저는 이번 멘토-멘티 활동에서 '원하는 활동 모음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멘토링 팀 친구들이 같이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 있을 때 추천받고 멘토님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2. 멘토와 멘티의 첫인상은 어떠했나요?

송유근 멘토 : 23학번 스무 살과 스물한 살들이 내뿜은 어벙하고 애기애기한 분위기가 너무 웃기고 귀여웠습니다. 처음부터 저세상 텐션을 보여준 친구부터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지만 알고보니 잘 웃는 친구도 있었고, 제일 짬민이 같아 보였지만 사실 21살 형이었던 멘티도 있어서 이번 학기도 상당히 재미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장명건 멘티 : 멘토선배를 처음 봤을 때는 간간한 분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 대해주는 유쾌한 분이신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신입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 주시고 여러 가지를 알려 주셔서 한층 더 충만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영채 멘티 : 멘토님은 친근하고 활발해 보
이셨고 첫 만남부터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여쭙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멘티 친구들은 나와 같은 학부 동기들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여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멘티들 모두 서로가
처음이라서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멘토선
배가 편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첫 만남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하
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Q3. 원활한 멘토링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이 있
다면?**

송유근 멘토 : 멘티가 멘티들끼리 친해지고
멘토와 친해지는 것이 멘토링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
로 가고 있고 교내활동도 모두 회복된 지
금, 새내기들이 스스로 친목 도모를 잘하
므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
고 생각했고 저는 멘티들이 멘토를 어렵
게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든지 부탁할 수 있게 편하고 가까운 존재
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로 말을 격식
없이 편하게 하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친구들이 쉽게 마음
을 열어줘서 지금까지 멘토링에 있어 문제
가 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4. 3중멘토링을 1학기간 수행하셨습니다. 장단
점은 무엇이였을까요?**

송유근 멘토 : 장점으로는 늙은이 4학년이
귀여운 1학년들과 합법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고학년일수록 신
입생과의 접점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3중
멘토링을 통해 이번 1학기에도 알게 된
23학번 친구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좋았
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점을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멘토 입장이어서 그런
가봅니다.

장명건 멘티 : 장점으로는 먼저 대학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
교는 과목, 시간표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
는데 멘토링은 변화된 학교 시스템에 적
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점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은 타인과 관
계를 맺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멘토링 팀과의 만남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영채 멘티 : 처음인 학교생활에 지치고 새
로운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바빴던 저에게
멘토선배와 멘토링 그룹이 없었다면 있는
지도 몰랐을 MBTI 특강과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학교 주최 활
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멘티들끼리의 단합이 생각보다 쉽
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Q5. 멘토와 멘티에게 KAU 3중멘토링은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인가요?**

송유근 멘토 : 내 사심을 채울 수 있는 공간. 사람을 좋아하고 애기들(21학번 또는 23세 이하)이라 부르는 후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애기들의 풋풋한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본격 송유근 사심 채우기 시간'입니다.

장명건 멘티 : 인터넷상에 떠도는 불확실한 대학 생활 가이드 같은 정보들과는 다르게 특정 대학(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에서의 생활에 대해 확실한 길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사회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이후 스스로가 멘토링에서 익힌 것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의미 있다 느꼈습니다.

지영채 멘티 : KAU 3중 멘토링은 편안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1학년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유익한 활동입니다.



Q6. 3중멘토링을 하면서 변화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송유근 멘토 : 성인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끈대가 아닌 어른의 모습으로 강요가 아닌 권유를 하고 혹 멘티들이 제가 제안한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각각의 선택과 방향을 존중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멘토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장명건 멘티 : 저 스스로가 중·고등학교를 충실하게 보내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멘토링을 통해 인생 마지막 학교생활인 대학 생활을 충실히 보내고 싶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영채 멘티 : 학교의 비교과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1학기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어려운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만으로도 바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는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3중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Q7. 이번달에는 멘티와 어떤 주제로 대화를 했나요?

송유근 멘토 : 시험기간이었고 1학년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 기말고사 관련한 대화가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시험 몇 과목 보는지, 언제 종강하는지 등등 물어봤었고, 같은 교수님의 다른 수업

을 듣는데 재수강을 하네 마네 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첫 학기 마지막 시험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포도당 사탕을 선물했습니다. 신입생들 화이팅!



멋지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대학에서의 생활을 배우고 그를 통해 스스로의 대학생활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멘토링이라는 그 서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영채 멘티 : 3중 멘토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안내 표지판'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인간관계, 전공수업, 교양수업, 동아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 1학년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판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해 보는게 당연하지만,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해주는 3중 멘토링이 있어서 올바른 길을 숙지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Q8. 멘티가 선배가 되었을 무렵 멘티가 본인을 어떤 멘토로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송유근 멘토 : 멘티들이 '재밌고 좋은 선배긴 했어. 편하고 친하고 재밌고 착한 선배. 친구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는지 학점도 높으셨던...' 정도로만 회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Q8. 3중멘토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유근 멘토 : '거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처럼 3중멘토링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과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명건 멘티 :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란 책의 '서두'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이라는 이름의 책을



With KAU 6월 웹진 퀴즈 EVENT

Q.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대학 과목재수로 재수강하는 과목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은 ?

- ① A⁺
- ② A⁰
- ③ B⁺
- ④ B⁰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06.23 ~ 2023.07.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천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25호

With KAU 5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④

우리대학 Tri인재路는 항공전문, 융합창의,
학문연구입니다.

2023****77 이○영

2023****64 박○홍

2023****54 정○철

2023****57 성○비

2023****86 인○형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2023년 7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Plan	Plan	Plan	Plan	Plan	1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7 Plan	8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3중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설문마감	2023흥미진진 프로그램 (STRON직업흥미)	2023흥미진진 프로그램 (STRON직업흥미)			
9 Plan	10 Plan	11 Plan	12 Plan	13 Plan	14 Plan	15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3흥미진진 프로그램 (MBTI성격유형)	2023흥미진진 프로그램 (MBTI성격유형)		
16 Plan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3-1 활동결과보고서 제출마감	
23 Plan	24 Plan	25 Plan	26	27	28	29 Plan
30	31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